

“학력저하 우려 없애자” 시교육청 대입 챙기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청렴풍토 확산에 주력해온 광주시교육청이 민선 하반기에 ‘학력 높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학력제고 방안은 고교 학력을 향상시켜 대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동안 실력저하를 우려해온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일일보고회 등을 대상으로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학력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는 민선 후반기 최우선 사업이라고 시교육청은 강조했다.

학력 제고방안의 축은 고등학교다. 대입 전문가 15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입시컨설팅단’을 꾸려 직접 학교를 방문, 학교 실정에 맞는 진학지도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입시전문가 양성과정도 운영된다. 고교 진로·진학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지도 전문가과정 연수를 실시하는 게 골자다.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수업기술 혁신연수도 상설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대입 적성검사를 받고, 구술면접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E러닝 콘텐츠’를 구축하는 내용도 있다. 학생들이 전문 대입상담교사와 1대1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시교육청은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돕기 위해 전국 연합학력평가 등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우수학교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대입자료 전문지원단’도 꾸린다.

시교육청은 공립고의 진학지도도

강화하기 위해 능력있는 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제도 개선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실력광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2학년도 수능의 주요영역에서 광주학생들의 1등급이 비율이 떨어지 7년 연속 수능 전국 최상위 행진에 주춤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력 신장책을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여론이 없지 않았다”며 “수시전형 확대 등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투명·공정한 수사로 검찰 신뢰 높이겠다”

김현웅 광주지검장 취임



“검찰이 없으면 안 된다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 신임 김현웅(53) 광주지검장은 ▲한 점 의혹 없는 제대로 된 수사 ▲성실하고 겸손한 소통 ▲인권 침해 없는 적법한 절차 등을 원칙으로 광주지검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검찰이 부정부패, 범죄와 싸우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가 높지 못하고 시선도 따갑다”며 “이는 국민의 정의에 대한 갈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검찰 개혁의 대전제 속에 특히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명백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 흥 이 고 향 으로 중 학 교 과 고 등 학 교 를 광 주 에 서 나 온 김 지 검 장 은 지 난 2001년 광 주 지 검 특 수 부 장 을 지 낸 뒤 11년 만에 지 검 수 장 으 로 광 주 를 찾 았 다.

그 는 “광 주 의 낯 이 은 거 리 와 풍 경 이 무 척 반 감 고 고 향 에 서 봉 사 할 수 있 는 기 회 를 갖 게 된 것 이 영 광” 이 라고 취 임 소 감 을 피 려 했 다.

김 지 검 장 은 사 시 26 회 (사 법 연 수 원 16 기) 출 신 으 로 대 검 검 찰 연 구 관, 법 부 부 법 무 심 의 관, 서 울 고 검 형 사 부 장, 춘 천 지 검 장, 서 울 서 부 지 검 장 등 을 지 냈 으 며 검 찰 내 호 남 인 맥 의 대 표 주 자 로 꼽 힌 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2분 / 해질 19시 45분 / 달뜨기 05시 28분 / 달지기 19시 34분

새벽 무렵 폭우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린 뒤 오후에 그치겠다.

지역	기온
광주	23/28℃
목포	24/27℃
여수	24/27℃
나주	23/28℃
완도	24/27℃
구례	24/28℃
강진	24/28℃
해남	24/28℃
장흥	24/28℃
순천	23/27℃
영광	24/28℃
진도	25/28℃
전주	24/28℃
군산	24/27℃
남원	23/28℃
홍산도	23/26℃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지역	종량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3.0~5.0m	경고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2.0~5.0m	경고	높음	높음

기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날씨						
최저/최고	23/30	23/28	23/30	23/31	23/32	23/32

총장직선 존폐 교수 투표 논의

전남대 평의회, 김윤수 총장 제의따라

교수·교직원 회의 및 심의기구인 전남대학교 평의회가 19일 총장직선제 폐지를 묻는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전남대 평의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직선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 뒤, 향후 구성원들에게 직선제 폐지를 묻는 투표 실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평의회는 한 관계자는 “총장 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이후 김윤수 총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9일~18일 각 단과대학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대학본부측이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면서 “평의

원회에서 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실시 문제를 다룰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남대 총동창회는 17일 총장 직선제 폐지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전남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총장 선출이 시급한 만큼 검찰의 총장 당선자(1, 2순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천 당선자의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사가 2순위 당선자까지 확산돼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주먹밥 카페 오월’

5·18모지 인근

마을기업 문열어

주먹밥과 차를 마시고 현지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살 수 있는 카페가 광주시 북구 문열동 5·18국립민주묘지 인근에 문을 연다.

카페 이름 ‘주먹밥 카페 오월’은 5·18 시민연대투쟁의 상징인 주먹밥을 브랜드화해 광주 오월정신에 의미를 부여하고 마을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담은 것.

광주시 북구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카페 개업은 석곡동(사)빛고을행복마을(경제문화공동체)이 중심이 되어 얻은 첫 결실이다.

‘주먹밥 카페 오월’은 20일 오후 5시 마을주민과 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김대성기자 bigkim@



화순들녘 풍년 기원 ‘우봉 들소리’ 공연

18일 오전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우봉마을 들녘에서 농민들이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우봉 들소리’ 공연을 하고 있다. 우봉 들소리는 서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내망주기자 mjna@kwangju.co.kr

정신건강 증진기관 탈바꿈

국립정신병원이 정신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과거 이미지를 벗고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거점기관으로 거듭난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립정신병원 개편 계획’에 따르면 나주·서울·광주·춘천·부곡병원 등 5개 국립

나주등 5개 국립정신병원 학폭·인터넷 중독도 치료

정신병원은 내년부터 각각 전남·경남·경북·충남·충북, 강원권, 경남·북권 ‘정신건강 증진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개별 병원을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서울) 아래 통합 관리하는 것은 국립정신병원의 역할과 진료 대상을 근본

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국립정신병원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주로 입원시켜 치료하는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폭력 관련 학생에게는 심리검사, 인성교육 등 전문 진단·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주요 대학 입시 ‘면접·인성평가’ 강화

상위권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상황 면접’ 도입, 예술·체육활동 경험 반영 등 입학사정관 전형을 중심으로 면접·인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이런 입시 동향을 포함해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간의 성과를 발표하

고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입학사정관제 성과보고 콘퍼런스’를 19~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3학년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면접을 통한 인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시공,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 남구 676-7719 / 북구 512-7998 / 목포 274-5987 / 순천 744-8605 /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 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토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